

제주와 중국 및 그리스 신화의 비교

양 영 수*

목 차

I. 서론	IV. 결론
II. 신과 인간의 관계	참고문헌
III. 신들의 상호관계	<ABSTRACT>

I. 서론

민족의 원형적인 우주관과 집단적인 무의식을 신화에서 발견하려는 노력이 활발하게 행해진 것은 벌써 오래전부터의 일인데, 이같은 신화연구는 여러 민족의 신화들을 상호비교함으로써 그 의미가 배가될 수 있다. 어떤 신화에 담겨있는 특징적인 요소가 다른 신화에 부재한다든가 여러 민족들의 신화에 공통되는 기본요소의 전개 양상이 다르게 나타나든가 할 때에, 민족신화들에 대한 비교 분석을 통하여 민족의 원형적 사고방식의 탐구는 그 깊이와 폭이 크게 증대된다고 볼 수 있다.

제주신화는 신과 인간의 관계 및 우주 속에서의 인간의 위치를 규정하는 본격적인 신화구조를 갖추고 있다는 이유로 한국인의 원형적인 우주관과 생명관을 구명하는 작업에서 매우 중요한 연구대상이 되고 있다. 중국은 역사상 정치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한국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가져왔기 때문에 중국신화의 연구와 그로부터의 조명을 통하여 한국신화의 의미해석에 참고삼는 일은 매우 의의있는 일이라고 생각된다. 비록 그 영향관계를 구명하기는 지난한 일이지만, 중국과 한국의 신화를 비교함으로써 동양정신의 특징을 발견하는 일에 중요한 시사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제주신화와 그리스신화를 비교하는 것은 물론 그리스신화가 서양의 여러 신화들 중에서 그 풍부한 상징성에 있어서 단연 돋보이는 대표적인 신화이기 때문이다. 제주 및 중국의 신화와 그리스신화를 비교해 봄으로써 동서양의 정신적 특징을 구명하는 작업에서 유익한 시사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이 논문 집필의 동기이다. 신들의 성격을 규정하는 개념 설정에서부터 동양과 서양의 신화는 큰 차이를 보여주기 때문에 이들 세 문화집단의 신화를 비교연구하는 일은 때로는 매우 난감하다는 느낌을 면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힘들고 무가망한 부분을 적당히 유보하는 한편 납득가능한 측면을 우선 밝혀내는 방향에서 이 방면의 연구에 착수하여 전체적인 신화구조를 비록 그 윤곽이나마 드러내 보려는 생각이 이 같은 논제에 착상하게 된 계기이다.

신화에 나타난 민족집단의 원형적 우주관을 살펴보는 일은 두 가지 측면에서 시도될 수 있을 것이니, 그 하나는 신과 인간의 관계이고 다른 하나는 신들 사이의 상호관계이다. 고대신화의 신들은 곧 우주의 구조나 자연현상을 상징적으로 재현하고 있기 때문에 신화에 나타나는 신과 인간의 관계는 곧 우주속에서의 인간의 위치를 암시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신들 사이의 상호관계는 우주의 구조나 자

* 제주대학교 교수

연력의 속성에 대한 고대인들의 해석을 재현한다고 볼 수 있다. 한 신화의 신들이 어떤 관계에서 서로 만나고 사랑하고 다투느냐 하는 문제는 결국 신들을 통하여 구현되는 우주와 자연의 운행법칙에 대한 당시대인들의 해석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신화란 결국 우주와 자연력을 설명, 해석하고 여기에 순응하기 위하여 인간이 만들어낸 이야기인 것이다.

II. 신과 인간의 관계

제주와 중국의 신화에서는 신들의 존재의의가 인간을 사랑하고 도와주는 데에 있다고 보는 것이 본 논문의 입장이다. 이들 두 지역의 신화에서는 인간을 사랑하는 신들의 가호와 배려에 의해 현재와 같이 사람살만한 우주구조와 지상세계가 생겨났다고 해석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제주와 중국의 신화에서는 현재의 우주와 자연은 있을 수 있는 최선의 조건을 갖춘 것이 되는 셈이다. 이와 반면에, 그리스신화에서는 인간을 사랑하는 일에 인색한 신들로 인하여 현재의 인간세계가 고통스럽고 불행하게 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신들과 인간의 관계는 긴장과 대립상태를 벗어나기 어렵다.

그리스신화의 신들은, 프로메테우스(Prometheus)를 제외하고는 인간을 사랑하고 도와주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다. 대부분의 그리스신들은 자기들 사이의 사랑과 미움과 다툼을 그들의 주된 관심사로 하고 있고, 그들이 인간사에 개입하는 것은 자신의 욕망을 채우고 자존심이나 호기심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든지, 아니면 인간에게서 祭物을 받은 댓가를 베풀어주기 위해서이다. 대체로 자연계의 여러 가지 힘이나 현상들, 또는 인간성의 어떤 요소들을 상징하고 있는 그리스신들은, 자연현상 자체가 인간의 고통스러운 삶에 대해 무심한 것처럼, 인간의 고통과 불행에 대해 동정해주지 않는다. 지배신 제우스(Zeus)에게 반항적인 프로메테우스가 인간생활의 발전을 도와주기 위하여 태양신의 수레바퀴에서 불을 훔쳐다가 인간세상에 선사하였을 때 제우스신의 노여움을 사고 3만년 동안 결박당하는 중형을 받은 이유는 신들의 전유물을 인간이 갖는 것은 절대 금기사항이기 때문이었다.(Edward Tripp, 500) 신의 전유물인 불을 인간에게 전해준 것이 이렇게 큰 죄가 된다는 사실은 인간을 창조한 것이 올림푸스의 주신들이 아니라 이들에게 반항하는 군소신인 프로메테우스였다는 사실과 결부시켜 생각해야 할 것이다.¹⁾

프로메테우스의 불 탈취 죄에 대한 응징의 수단으로 만들어졌다는 최초의 여성 인간 판도라(Pandora)의 결혼을 기념하여 올림푸스신들이 주었다는 선물인 이른바 '판도라의 상자'는 그리스신화에서 나타나는 신과 인간의 관계를 상징적으로 설명한다고 볼 수 있다. 경박한 여자로 알려진 판도라가 자신의 선물상자를 열어보았을 때 공중으로 날아간 것들은 인간세상에 존재하게 될 온갖 재앙의 씨앗이었다. 선물상자를 열어보지 말라는 신들의 당부를 판도라가 열어보았기 때문에 이같은 불행의 씨앗을 퍼뜨린 것은 인간 자신의 책임이라는 말도 나올 만하지만, 이 경박한 여자가 선물상자를 틀림없이 열어볼 것이라는 것을 신들은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이니 결국은 신들 자신이 인간의 불행을 원했다는 예기이

1) 올림푸스 주신들에게 인간의 존재가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명제에 대한 로이드 존스의 서술을 인용해 본다. "The Greek religion is not anthropocentric: men are the creation only of a minor god, and have only a minor status in the universe and a minor place in the attention of the gods", "The gods govern the universe not in men's interest but in their own, and have no primary concern for human welfare." Hugh Lloyd-Jones, *The Justice of Zeus* (1971), p. 160 & p. 161.

다. 그리스신화의 異說에 의하면, '팬도라의 상자' 안에 들어있던 것은 인간세상에 대하여 유익하고 상서로운 내용물로 되어 있고 팬도라가 급히 상자 문을 닫았기 때문에 '희망' 하나만은 그 안에 남아있게 된 것이라고 하지만(H. A. Guerber, 22-3), 선물상자의 내용물이 이같은 것이었다 하더라도 '팬도라의 상자'가 함축하고 있는 의미가 인간에 대한 신들의 저주임에는 변함이 없다. 아테네(Athena) 여신이라 하면 그리스신화의 신들 중에서 가장 영민하고 인간에게 길쌈과 공예술을 가르쳐주며 아테네시의 수호신으로 숭배받는 신인데, 이러한 아테네 여신조차도 아라크네(Arachne)라는 여자가 자신의 길쌈 솜씨보다 못하지 않다는 소문에 자존심이 상하여 이 여자를 평생 실을 뽑고 살아야 하는 동물인 거미로 만들어버리는 심술을 부리고 있다. 또한, 데메테르(Demeter) 여신은 농경신으로서 땅위에 가축과 초목을 키워주는 막중한 역할을 맡고 있는데도, 자기 딸이 지하세계의 지배자 하데스(Hades)에게 납치되어 간 일에 분노한 나머지 자신에게 맡겨진 초목생장의 책임을 망각해버리고 지상세계에 기근이 들게 만들어버린다.

인간세계에 큰 은혜를 베풀어 줌으로써 많은 숭배자를 얻은 그리스신으로는 아폴로(Apollo)도 있는데 이 아폴로신의 인간사랑이 어떤 종류의 것인지를 살펴봄으로써 그리스신화에서 신과 인간의 관계가 어떤 성격의 것인지를 짐작해 볼 수가 있다. 이성의 신 아폴로는 인간에게 우주해석의 비밀로서의 영험스러운 신탁을 전해주었고 고마운 醫術을 보급해준 신으로 숭배를 받았지만 여기에는 그리스신 특유의 자기중심논리가 있다. 코로니스(Coronis)라는 여인에게서 사랑의 배신을 당한 아폴로는 격분하여 이 여인에게 죽음의 응징을 내린 다음에 그들 사이에서 불행하게 태어난 아들 아스클레피오스(Asclepius)에게 못다한 부성애를 베풀어주고 싶은 나머지 아들의 소원인 의술 연구를 위해 최상의 조건을 만들어주게 되는데, 그 결과 의술의 대가로 성장하여 세인의 추앙을 받게 된 아들의 후광을 입어서 아폴로 자신까지 자비로운 의술신으로 못 사람의 숭배를 받게 된다(퀸마이어, 149-52). 아폴로신이 인간세상의 의술신이 된 데에는 이렇게 신 자신이 갖고 있는 자기실현적인 욕구가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신들이 인간을 위해 좋은 일을 해 줄 때에도, 그것은 인간을 진정으로 사랑해서가 아니라 신 자신의 자기만족을 위한 것이라는 그리스신화의 기본 논리에서는 신의 존재가 인간의 복리를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가 自救勞力하는 자주적 독립심과 개척정신의 함양이 절대로 필요하다라는 점에서 인간의 자력에 의한 문명발달의 채적으로서는 매우 강력한 힘이 된다 하겠다.

그리스신화에서 신들 사이의 하찮은 자존심 싸움 때문에 인간이 수난을 당하고 있음은 트로이전쟁 이야기를 통하여 잘 드러나고 있다. 트로이 왕국의 멸망을 초래한 10년에 이르는 이 전쟁이 발발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부터가, 아테네(Athena) - 헤라(Hera) - 아프로디테(Aphrodite) 세 여신의 경쟁적인 허영심 때문이었다. 이들 세 여신중에서 누가 제일 빼어난 미모인지를 가려내는 심판역할이 트로이 왕자 파리스(Paris)에게 맡겨지고, 파리스 앞에 초미의 난제로 등장한 '미녀의 사과'[결국은 '불화의 사과': the apple of discord]가 아프로디테의 것으로 낙착되고 이 미의 여신이 스파르타 왕비 헬레네를 납치하여 파리스의 부인으로 만들어 줌으로써 그리스 영웅들의 민족적인 자존심을 손상시킴에 따라 두 나라 사이의 전쟁이 시작된 것이다. 올림푸스신들은 이 전쟁중 그리스와 트로이 양쪽 편으로 갈라져서 후원을 하는데 때로는 기분내키는 대로 편드는 쪽을 바꾸어 버리는 변덕을 부린다. 여러 나라의 운명과 못 영웅들의 생사가 걸려있는 전투에서 어느 쪽이 이기느냐 하는 것은 신들의 무원칙한 간섭에 의해 결정되었으니, 파리스가 그리스 진영의 영웅 아킬레스(Achilles)에게 쏘았던 독 물은 화살이 그의 발 뒤꿈치를 명중하게 된 것도 아폴로신의 원격조종을 받은 때문이었다(Edith Hamilton, 193). 트로이전쟁 승패의 갈림길을 결정하는 것은 신들의 변덕이 아니라 신탁(神託, oracle)에 예정된

운명인 것으로 서술되기도 하지만, 넓은 의미에서 볼 때에 신탁은 결국 신들의 불가사의한 의지라고 볼 수가 있을 것이다.

아르테미스(Artemis)와 아프로디테 사이의 자존심 싸움 때문에 수난당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그리스신화의 신들이 인간에게 얼마나 냉혹한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이다. 아테네 왕 테세우스(Theseus)는 아마존족의 여왕 히폴리타(Hippolyta)와의 짧은 연애기간에 얻은 아들 히폴리투스(Hippolytus)가 장성한 다음에 젊은 나이의 파에드라(Phaedra)를 새 아내로 맞아들이는데 이 새엄마와 의붓아들 사이에서 애욕의 여신 아프로디테가 일으키는 분란과 비극은 신들에게 농락당하는 인간의 무력함에 대해 처연한 느낌을 갖게 한다. 히폴리투스가 애욕의 여신을 놔두고 순결의 여신 아르테미스를 숭배한다는 사실 때문에 자존심이 상한 아프로디테는 파에드라로 하여금 이 미남 청년에 대한 짝사랑으로 고민하다가 자살하도록 만들고, 남편한테 남긴 유서에서 자살의 이유를 의붓아들로부터 받은 부끄러운 구애 행위 때문이라고 꾸며댄 파에드라의 거짓 고자질은 급기야 격정에 치받친 테세우스로 하여금 죄없는 아들에게 죽음의 응징을 내리도록 하는데, 이 모든 비극은 아프로디테와 아르테미스 사이의 감정 싸움에 그 원인이 있었던 것이다(H. A. Guerber, 152-3).²⁾

제주신화의 기본적인 성격은 신들의 존재의의가 인간의 복리를 도와주는 데에 있다는 것이다. 창세신화에 해당되는 <천지왕 본풀이>에서부터 인간의 행복을 위한 신의 존재라는 제주신화의 대원칙은 명백히 드러난다. 천지가 아직 혼돈상태에 있을 때 “혼란한 세상질서를 바로잡는 일이 천지왕에게는 항상 걱정”이었고³⁾, 총맹부인과 사이에서 두 아들을 얻은 천지왕은 “이승은 형인 대별왕이, 저승은 동생인 소별왕이 차지해서 질서를 바로잡아 통치하도록 했다”(현용준, 16쪽). 천지왕에 의해 신격을 부여받은 제주신화의 남녀 신들은 인간의 삶을 도와주는 일을 그들의 일차적인 관심사로 하고 있다. 인간의 삶을 도와주고 걱정하는 일 말고는 신들에게 다른 중요한 할일이 없다는 것이 제주신화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제주신화의 직능별 諸神은 인간세계에서 출중한 인격이나 신통한 능력을 지닌 사람이 선정되어 신격화된 존재이며 선정기준인 인격과 능력이란 것도 제각기 자기가 맡을 방면의 특성과 관련된 것이었다. 옥황상제가 동해용왕 따님아기 대신에 명진국 따님아기를 출산신인 삼승할망으로 간택한 것은 그녀의 효성이 지극한데다 (아기를 잘 키우는 신통력으로서의) 번성꽃 키우는 능력을 인정했기 때문이었다. 꽃가꾸기의 정성과 재주가 모자라서 이물어 가는 꽃을 만들어 버린 동해용왕 따님아기는, 시드는 꽃처럼 죽음을 당한 어린 아이의 영혼을 차지하도록 하였다. 황금산 도단땅 주자대선생의 아들들인 잿부기 삼형제가 巫祖神으로 좌정하게 된 것은 그들의 잉태와 출생의 방식에서부터 비범한 영험을 쌓았고 그

2) 그리스신화에서는 인간에 대한 신들의 시샘 때문에 인간의 복리증진이 손해를 입는다는 점에서는 비판론적인 데가 있지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자기 삶의 영역을 넓히기 위하여 신의 권능에까지 도전하는 인간상을 그리고 있다는 점에서 볼 때에, 인간성 자체의 구조에 대해서는 낙관론적인 입장을 취한다고 생각된다. 또한 신들의 속성을 그림에 있어서 현실세계의 인간들처럼 온갖 인간적인 욕망과 질투심을 갖는 것으로 나와 있다는 것은 현실적인 인간성의 적나라한 모습 자체를 전적으로 긍정하는 인간찬미의 입장이라고 볼 수 있고, 그리스 신들의 주된 관심사라는 것이, 세계통치의 업무수행이나 도덕적인 고정관념에 얽매이지 않고, 그들 자신의 삶을 즐기는 데에 있다고 볼 때에, 그리스인들의 낙천적인 생명관이 표출된 것이라고 여겨진다. 王治心의 지적대로, 그리스신화에 나타나는 향락적이고 희극적인 분위기는 마치 맑고 푸른 에에게해처럼 인생의 밝은 면을 보여주는 반면에, 중국신화가 보여주는 침중하고 장엄한 분위기와 무서운 천재나 우환의 빈번한 등장은 황하와 발해만의 검고 혼탁한 물처럼 세상사의 어둡고 고단한 면을 보여준다고 생각되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王治心, 290-7)

3) 현용준, 『濟州島神話』(서문당, 1976), 12쪽. *제주신화로부터의 발췌인용은 이 책으로부터임.

天帝釋宮에 간혀있던 어머니를 복과 장고의 힘을 빌려 특별석방하도록 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산만산할락궁이가 서천꽃밭 꽃감관 자리를 물려받아서 인간의 죽음과 환생을 관장하는 이공신으로 좌정하게 된 것은, 억울하게 죽은 어머니를 살려내기 위한 환생꽃을 얻기까지의 시련과정을 통하여 생사여탈의 권좌에 요구되는 덕성과 용기를 시험받았기 때문이었다. 강이영성이서불의 막내딸 가문장아기에게 재운을 맡는 삼공신의 자리가 주어진 것은 그녀의 신통력을 통하여 자기의 가족과 애인에게 재물운세를 띄워주는 영험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김진국대감의 외동딸인 자청비가 인간세계의 농경과 목축을 관장하는 세경신으로 간택된 것은 그녀의 뛰어난 지혜와 용기뿐만 아니라 인간세계의 풍요한 생활에 도움을 베풀어 주고자 하는 뜨거운 열망을 옥황상제로부터 인정받았기 때문이다. 남선비의 막내아들이 가문의 안전과 평안을 가져오는 門前神이 된 것은 아버지의 부정한 외도로 인하여 한 때 흐트러졌던 일가문의 질서를 바로잡는 동안 그가 보여준 지극한 효성과 담대한 행동력 때문이었다.

중국신화는 그 속에 등장하는 諸神의 존재의의가 인간의 삶을 도와주는 데에 있다는 점에서 제주신화와 공통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런 가운데에 몇 가지 점에서 이들 두 지역 신화에 나타나는 신과 인간의 관계가 상이하다는 것이 눈에 띈다. 첫째, 제주신화의 직능신들은, 앞에서 보았듯이, 원칙적으로 능력이나 덕성의 면에서 비범한 인간들 가운데에서 간택되며, 따라서 제주신화 스토리의 대반이 이들 비범한 인간이 치세업무를 올바르게 분장받기 위해 신의 신분으로 격상되는 내력담인 반면에, 상고시대 중국신화의 대부분의 主神들은 인간 신분에서 격상되는 과정이 없이 처음부터 천상에서 유래한 신들이기 때문에 인간이 신격화되는 내력담보다는 신이 인간을 도와주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 자체가 신화의 주된 내용이다. 이들 천상유래적인 신들의 최상위 주재신은 동서남북 네 방위 및 중앙의 五方神인데 이들은 인간세상의 발전을 위한 치세업무를 하위 직능신들에게 갈라 맡김에 있어서 제주신화에 서처럼 고도의 분업화가 이루어져 있지 못하여 최고신 스스로가 대부분의 치세업무를 직접 관장한다. 즉, 東方의 上帝 복희(伏羲, 별칭은 太皞)는 번개를 이용한 불을 발명하여 火食法을 가르쳤고, 거미가 집짓는 법을 모방하여 그물로 물고기와 새 잡는 법을 가르쳤으며, 易思想의 기초인 八卦를 발명하여 천지간 음양변화의 오묘한 원리를 전하였다. 태양신이자 남방의 상제인 神農(=炎帝)은 곡식이 잘 자라도록 햇빛을 내려주는 한편 백성들에게 오곡의 농경법을 가르쳤으며 들판에서 약초를 발견하여 질병구원의 비법을 전수해 주었다. 서방의 상제 少昊는 새들에 의한 모범적인 내각구성의 예를 보여주었고 장엄한 落日風景 감상의 시범을 남겨주었다. 북방의 상제 顓頊은 천지간의 통로인 天柱를 끊어 버림으로써 사악한 逆神이 지상의 인간들을 끌어모아 상제에 대한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했고, 性別 및 階層別에 따른 사회질서와 예의를 세워주었다. 중앙의 상제이면서 중화민족의 조상신으로 추앙받는 黃帝는, 曆法과 度量衡을 발명하는 등 인간으로 하여금 일상생활의 편리를 도모케 해주었다.

둘째로는 제주신화가 주로 무속신화이고 중국신화가 주로 자연신화라는 사실에서 나오는 차이점이 있다. 일반서민들 사이에서 초자연적인 힘에 의지하여 복을 받고 화를 피하려는 욕구의 표현이라 할 제주의 무속신화에서 신들은 대체로 치성을 바쳐 기구하는 개인들의 복리를 베풀어주고 있는 반면에, 대체로 지배계층에 속하는 문사들에 의해 쓰여졌을 중국신화에서는 우주창조와 자연현상의 보편적이고 비개인적인 질서의 형성을 통하여 인간세계의 안전과 복리증진을 가져다주는 경향이 있다. 제주신화의 이같은 개인주의적 모티프는 祈子佛供 성취의 수많은 사례에서 확인된다. 즉, 자식을 얻지 못하여 힘든 불공을 드린 끝에 소원성취하고 어렵게 얻은 그 자식이 성장하여 主神 대열에 끼인다는 것은 보편적인 세계질서의 관념보다는 개인적인 배려의 관점을 증시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나아가서 제주신화에서는 염라대왕이나 저승차사에게 정성껏 대접함으로써 수명까지 연장하고 있다. 이외에도 제주

신화에서 어느 특정 인물에게 좋은 인심을 보여주는 것이 자신의 소원성취의 첩경이 되는 예를 많이 찾아볼 수 있다.

중국신화에서 신이 인간을 도와주는 방식이 보다 보편적인 관점의 것임은 창세신화에서부터 나타난다. 제주도 창조신화의 설문대할망은 자식들의 양식을 위해 자신의 육신을 송두리째 희생하고 있음에 반하여, 중국 창세신화의 여와신은 자연세계의 객관적 조건을 개선함으로써 자기가 창조한 인간의 살 길을 마련해 준다. 즉, 하늘에 구멍터진 것을 오색 돌을 녹여 만든 암장(岩漿)으로 메꾸어 줌으로써 홍수를 막아주고 하늘이 무너지지 않도록 天柱로 떠받쳐 주고 있는 것이다. 요임금 시절의 天神 후예(后羿)는 上帝 帝俊의 미움을 받아가면서도 上帝의 아들들인 아홉 개의 태양을 활로 쏘아 떨어뜨림으로써 기후를 조절하여 지상세계의 초토화를 막아준다. 신이 자연질서 개선을 통하여 인간세상을 도와주는 대표적인 예는 곧(鯀)과 禹의 치수사업이라 할 것이다. 천상의 大神 곧은 祖父神인 黃帝로부터의 금단의 명령을 거역하면서까지 천상의 息壤을 몰래 훔쳐다가 뚝을 쌓아 치수의 대업을 시도한다.⁴⁾ 곧의 아들인 禹 임금은 자연재해를 막는 일에 열중하느라고 가족에 대한 애정까지 포기한 것으로 유명한데, 그는 부친 곧의 치수방법인 障障工法(障障工法: 물길을 막는 치수공법)보다 진일보한 疏導工法(疏導工法: 물길을 터주는 치수공법)을 이용하여 중국민족의 오랜 숙원인 치수사업을 완수해 낸다.⁵⁾

어떤 신화 속에서 신에 대한 인간의 관계가 어떤 성격의 것이냐 하는 문제는 역사창조의 주체자로서의 인간의 능력을 어떻게 보고 우주 속에서의 인간의 위치를 어떤 것으로 보느냐 하는 중요한 문제로 연결된다. 제주나 중국의 신화에서처럼 신은 인간생활을 도와주는 것이 당연하고 인간은 필요할 때마다 신의 가호와 배려를 기대할 수 있다고 할 때 인간은 스스로의 능력개발과 자력에 의한 역사창조의 노력에 순종적이고 수동적으로 되기가 쉬울 것이다. 반면에 그리스신화에서처럼 신들은 인간의 불행과 고통에 대해 냉담하고 그들의 일차적인 관심사는 인간사를 도와주는 데에 있지 않다고 할 때 인간은 자신의 인생문제 해결을 위해 스스로의 능력과 노력밖에 믿을 것이 없고 자신의 권리주장을 위해 신들에 대한 과감한 투쟁과 도전도 불사해야 하기 때문에 그만큼 공격적이고 능동적인 삶의 태도를 기르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인간의 욕망에 대해 냉담한 신들과 신의 권능을 탐하는 인간과의 대립관계는 그리스신화의 본질적인 특징으로서, 이러한 특징은 르네상스 시대에 부활되어 근대유럽정신의 기초로 발전된 자연정복적인 휴머니즘사상으로 발전하게 된다. 중세 서양의 기독교중심 사상에 있어서는 신이 인간의 기도에

4) 중국신화에서 곧이 식양을 훔친 사건과 그리스신화에서 프로메테우스가 천상의 불을 훔친 사건을 비교하는 위엔커의 관점은 두 신화의 神人關係에 내재하는 본질적인 차이를 잘 보여준다. 그에 의하면, 主神이 아닌 프로메테우스가 불을 훔쳐 인간에게 선사한 것은 인간을 시기하는 主神들의 지배체제에 대한 반항이며 인간이 불을 이용하게 된 것은 결국 신들의 횡포에 대항하는 인간의 자기주장임에 비하여, 곧이 식양을 훔쳐 홍수를 막는 일은 인간의 불행을 가엾게 여긴 천신이 인간에게 베푸는 자비로운 배려이다. 곧의 死刑과 羽山幽閉는 영원 절대의 배제가 아니다. 곧의 시체 속에서 성장하여 배를 가르고 태어난 곧의 아들 우는 상제로부터 정식으로 치수의 대명을 받게 됨으로써 지배신 체제의 처세질서에 수용되고 있으며, 이는 그리스신화의 主神 제우스가 프로메테우스의 불 탈취를 끝까지 용서하지 않고 코카사스 산정에 결박형을 내린 것과 다르다는 것이다.

위엔커 지음, 전인초-김선자 공동번역 『중국신화전설 1』(민음사, 1999), 347-50 쪽 참고.

5) 王治心の 『중국종교사상사』에 의하면, 숭배 및 기도 대상으로서의 天帝의 선의에 회의를 품고 인간을 도와주는 하늘의 의지를 부정함으로써 고대중국의 전통적인 종교사상에 큰 충격을 준 선각자가 노자라고 한다(王治心, 42). 인간의 至誠이 하늘을 감동케 하고 천우신조의 행동을 초래한다는 天人感應說을 대담하게 부정한 노자의 혁명적인 사상을 돋보이게 하는 것이 王治心の 지적이지만, 필자의 견해로 본다면, 상고시대의 중국신화 가운데에는 신이 인간을 도와주는 방식의 기본이 개별적인 시혜보다는 보편적인 자연조건 형성에 있었음을 상기하면서 노자의 天地不仁의 자연관의 싹이 고대신화에서부터 이미 배태되어 있었다고 보고 싶다.

귀 기울이고 은총을 베푸는 것을 당연시했다는 점에서 제주나 중국의 신화에서 인간의 행복을 도와주는 신들의 개념과 상통하는 데가 있었다. 그러나, 근대 이후 나타난 기독교 사상의 주요한 변천은, 인간이 신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올바른 길은 기도를 통해서보다는 신의 섭리라고 생각되는 자연법칙을 탐구함에 의해서 발견된다는 믿음이었다. 이로써 서양의 근대적인 인간상은, 신의 사랑과 은총에 의지하지 않으면서 자연법칙을 발견하고 이용하는 인간자신의 노력에 의해 의해 역사발전을 기하자는 주체적 역사관에 입각하여 형성되게 되는데, 제주나 중국의 신화에 나타나는 의타적인 운명관과 비교하여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⁶⁾

Ⅲ. 신들의 상호관계

제주와 중국 및 그리스의 신화는 신들의 상호관계에서도 어느 정도 뚜렷한 이질성을 보여주는데, 결론부터 말한다면, 제주신화에서는 평화의 원리, 중국신화에서는 평정의 원리, 그리스신화에서는 투쟁의 원리가 구현되고 있다.

그리스신화의 신들 사이에서 투쟁의 원리가 구현되고 있다고 보는 것은, 이 신화에서는 우주의 지배권을 획득하는 방법이 폭력적인 항거에 있기 때문이다. 중국신화에서도 지배신은 하위신들에 의해 여러 차례에 걸쳐 지배권 도전을 받지만, 하극상의 도전이 성공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음에 반하여, 그리스신화에서는 하극상의 도전이 지배권 탈취의 정상적인 방법이 되고 있음이 주의를 끈다. 제주신화에서는 상위신에 대해 하위신이 도전하는 예는 보이지 않으므로 평화의 원리가 신들간의 관계를 규정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신들간의 관계를 규정하는 원리의 출발은 창세신화에서부터인데, 이에 대한 설명은 신들간의 관계가 극히 대조적인 제주신화와 그리스신화를 먼저 비교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하늘과 땅의 신에 의해 천지창조의 위업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대해서 제주신화와 그리스신화는 매우 대조적인 서술을 하고 있다. 제주신화에서는 하늘의 신 천지왕과 땅의 신 총맹부인이 다른 어떤 것에서부터 유래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자명하게 존재하였고, 다만 함께 붙어있던 하늘과 땅 사이에 금이 가서 분리되는 글자 그대로의 천지개벽이 우주역사의 첫 단계였음에 반하여, 그리스신화에서는 태초에 無定型 無形體의 상태에 있던 우주가 사랑의 신 에로스의 결합의 힘에 의해 천지창조의 위업이 시작된다. 처음부터 자명하게 존재하는 제주신화의 천지왕이 절대적인 권위를 가짐으로써 이에 도전하는 자가 없음에 비해, 혼돈과 암흑과 광명의 신 등 다른 무엇에서부터 탄생된 그리스신화의 가이아(Gaea: 땅의 신)와 우라노스(Uranos: 하늘의 신)가 우주 안의 다른 존재자처럼 탄생과 소멸의 법칙에 지배받음으로써 아들신에 의해 쫓겨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 하겠다. 그리스신화에서 우주의 지배권이 아들신에 의한 부모신의 권좌 탈취라는 공식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은 결국 생명의 우주적인 순환논리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6) 그리스신화에서 서양정신의 주요한 연원을 찾는 홀튼과 호퍼의 견해에 따르면, 인간의 기원을 쉽게 들어주는 인간애호적인 신의 개념이 인간욕망의 실현과 무관한 자연법칙의 창조자로 바뀌었다는 것이 18세기 유럽 계몽 사상의 주요한 특징이라고 한다. "Previous concepts of God began to be replaced by an 'enlightened' realization that the Deity should be understood as the remote and inaccessible Creator of the laws of nature, the operation of which would never be changed for the accomodation of any personal desire." Rod W. Horton & V. F. Hopper, *Background of European Literature*, 2nd ed. (New Jersey: Princeton Univ. Press), p. 329.

하늘의 신 우라노스를 왕좌에서 몰아내는 것은 그의 아들이자 시간의 신인 크로노스(Cronos)이다. 우라노스는 땅의 신 가이아와의 소생인 巨人神族들이 자기에게 모반할 것이 두려워 그들의 출생 즉시 탈타로스(Tartarus)라고 불리는 킴킴한 지하세계로 내던져 버리는데, 막내아들 크로노스는 모신 가이아의 도움을 얻어 부신의 축출에 성공한다. 폭력으로 지배권을 얻은 크로노스는 부신이 당했던 왕위 被奪의 운명을 피하기 위하여 여왕신 레아(Rhea)와의 사이에서 태어나는 자식들을 모두 입속에 넣어 버리는데 이번에도 母神 레아는 모성애와 지혜를 발휘하여 막내아들 제우스에 의한 부왕신의 축출을 성사시킨다. 아들신에 의한 부왕신의 찬탈은 그리스신화의 특징적인 모티프로서, 제우스신까지도 올림푸스神族의 왕이 된 다음에는 이같은 운명을 당하지 않을까 전전긍긍 불안한 세월을 보내야 했고, 유일하게 그 비밀을 알고 있는 프로메테우스의 도움을 빌려서야 그러한 신탁을 모면할 수 있게 된다(프로메테우스 자신이 하극상 도전을 감행하는 群小 叛逆神으로서 그리스신화의 투쟁모티프를 구현함).

제주신화에서는 대부분의 신들이 지배신 천지왕의 간택을 받아 신으로 격상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천지왕에 대한 하극상의 도전 움직임은 찾아볼 수 없다. 그리고, 제주신화에서는 천지왕 아래의 직능신들 사이에 치세업무 분장이 명료하게 이루어졌고 따라서 諸神들간의 횡적인 관계는 거의 없기 때문에 이런 신들간의 다툼은 애초부터 그 가능성이 봉쇄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창세신화인 <천지왕 본풀이> 가운데 나오는 형제간의 지배권 다툼 이야기는 제주신화의 평화 모티프와 관련하여 흥미할 만한 부분이다. 천지왕의 큰아들 대별왕과 작은아들 소별왕이 벌이는 인간세계 지배권 쟁탈은 그리스신화의 폭력수단과는 달리 수수께끼 맞추기나 꽃가꾸기 같은 지극히 평화로운 방법을 쓰고 있다. 이에 관련하여 흥미로운 것은 제주도 무속신화와 구별하여 문헌신화로 분류되는 三姓神話에 나오는 三乙那의 활쏘기 장면이다.⁷⁾ 땅에서 湧出한 三神人은 동해벽랑국에서 보낸 靑衣의 처녀 三人을 만난 후에 “나이 차이에 따라 나누어 장가들고, 물이 좋고 땅이 기름진 곳으로 나아가 활을 쏘아 거처할 땅을 점치었다”(三人以歲次分聚之 就泉甘土肥處射矢卜地)라고 하는(현용준, 23) 것은 제주신화의 평화공존의 원리를 구현한다고 보아진다. 화살을 경쟁상대에게 향하도록 쏘지도 않고, 활을 누가 더 잘 쏘느냐 하는 우열의 경쟁이 아닌 이상 분쟁의 소지는 애초부터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제주신화 가운데에서도 제주지역의 지방색이 잘 드러난다는 본향당본풀이 중에서도 활을 쏘아 떨어진 곳을 기준으로 하여 신들의 영역을 경계짓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 한라산신 9형제중 둘째인 서귀리 보름(바람) 웃도가 하서귀를 차지하고 그 큰부인 고산국은 서흥동을, 작은부인 지산국은 동흥동을 차지하게 된 것은 화살이 날아가서 떨어진 곳에 세 지역 수호신이 좌정한 결과인데 三姓神話의 射矢卜地 모티프와 일치된다(고대경, 268; 장주근, 124)

중국신화에서는 최고신인 上帝의 전횡적인 통치방법에 대해 하극상의 반란이 몇 차례 일어나고 있다. 중앙 上帝 黃帝에 대해서 천신들인 치우(蚩尤)와 刑天의 반란이 있었고, 북방 상제 전욱에 대해서는 지배신의 우주구조 배치방법에 불만을 품은 共工이 반란을 주도하였는데 共工은 지배권 도전의 거사가 뜻대로 안되자 하늘나라에 연결된 不周山을 들이받기 까지 한다. 또한 천신들인 곤(鯀)과 후예(后羿)는 각각 치수사업과 활쏘기 명수로 알려진 영웅신들인데 이들은 상제의 뜻을 거역하면서까지 인간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소신껏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런데 중국신화에 나오는 하위신들의 반란은

7) 장주근에 의하면, 제주도의 三姓神話도 원래 무속신화에서 유래하였다고 한다. 즉, 한국의 고대문화 발달사에서 무속신화가 원형이라면 왕권신화는 그 분파형이라는 일반적 설명을 기초로, 廣陽堂 三神人을 모시는 본향당 신화가 高梁夫 三姓氏族의 조상신 본풀이를 거쳐서 유교적 제례에 따르는 삼성신화로 발전했다는 설명이다. 『한국신화의 민속학적 연구』(집문당, 1995), 178쪽.

한결같이 큰 어려움없이 진압되며 이러한 반란 때문에 지상세계의 질서가 파괴되지는 않는다. 결국 중국신화에서는 신들의 관계가 평정의 원리에 따르고 있고 이는 제주신화에 나타나는 평화의 원리 및 그리스신화에 나타나는 투쟁의 원리를 양끝으로 하는 중간지점의 원리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위앵커는 중국신화의 逆神들에 대하여 매우 흥미있는 해석을 하고 있다. 그는 계급투쟁적인 맑시즘 이론에 경도된 타인지 상제에 대해 반항을 시도한 逆神들을 지배권력에 대한 정의로운 반항을 감행하는 영웅신으로 간주하고 있다. 그에 의하면 중국신화에서 반항적인 투쟁신이 상당수 존재하는 것은 압박받는 민중이 지배계층에 대해 갖는 반항심리를 표출시킨 것이며, 신화 속의 반항신에게 인격적인 결함이 있고 이들 영웅신이 결국은 자신의 결함 때문에 패배하는 것으로 서술되는 것은 지배계층에 의한 반항신 폄하적인 신화조작을 증거한다는 것이다.⁸⁾

지배권력 여탈의 문제를 떠나서도 그리스신화는 그 직능신들 간에 대립과 긴장의 관계가 많은 것이 특징이다. 앞에서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아르테미스와 아프로디테 사이에 밀고 당기는 암투관계가 있는 것은 순결과 애욕을 둘러싼 자기모순적인 여성심리를 표출시킨 것이라 볼 수 있다. 또한, 대지의 신 데메테르는 자기 딸 페르세포네에 대한 어머니로서의 親權行使를 주장하는 가운데 지하세계의 지배신이면서 페르세포네를 사랑하는 하데스와는 이해관계가 충돌되는 것으로 나오는데 이러한 충돌은 실상은 밝음과 어둠 및 생명과 죽음 사이에 있는 원천적인 대립관계를 상징한다. 그리고, 냉정한 합리주의와 학문정신의 표상인 아폴로와 자기도취적인 흥분과 엑스타시의 신 디오니수스는 그 상반되는 성격 때문에 화해의 공존관계를 갖지 못하여 동시적인 숭배의 대상에서 원천적으로 배제됨으로써 그리스신화의 기조인 투쟁 모티프를 구현하고 있다. 고대 그리스인들이 대립관계에 있는 理性神과 엑스타시神을 숭배했던 교묘한 방법은 그들이 인생의 상극적인 두 가지 요소를 공존시키는 독특한 방법을 암시하는 것 같다. 즉, 고대 그리스인들은 파나씨스산 기슭 델피 마을의 아폴로 신전을 비롯한 여러 곳에서 태양신 아폴로와 酒神 디오니수스를 함께 숭배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일이 논리적으로 가능하게 된 것은, 디오니수스를 숭배하는 기간인 12월 말부터 3월 말까지는 아폴로가 북쪽지방으로 연례적인 출장여행을 가는 것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리스신화의 신들 사이에 존재하는 대립과 갈등의 관계는 남신과 여신들 사이의 애정관계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그리스신화에서 끊임없는 애욕을 불태우는 낭만적인 신으로서 남성은 제우스, 여성은 아프로디테를 꼽을 수 있다. 올림푸스의 지배신 제우스는 대담하고 교묘한 혼외정사를 솔하게 벌임으로써 질투심 많은 아내 헤라를 속상하게 하고 있고, 사랑과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는 자기의 정식 남편인 절름발이 추남신 헤파에스투스(Hephaestus)의 눈을 피하여 못 남성들과의 정사를 즐기는데 이들의 애욕은 그 상대의 신분이 신인지 인간인지를 가리지 않을 정도로 무차별적이고 무제한한 것이었다. 제우스와 아프로디테의 애정욕구는 너무도 강렬한 것이어서 그들의 정식 배우자인 헤라와 헤파에스투스의 집요한 감시와 견제를 받으면서도 끊임없이 계속됨으로써 이들 각자의 부부관계를 긴장과 갈등의 상태로 몰아가고 있는데, 바로 이점이 제주 및 중국의 신화에 나타나는 신들의 혼외정사 대처 방법과 비교하여 흥미있는 대조를 이룬다. 물론 제주와 중국 신화의 남녀 주인공들간에는 이렇다할 애정관계 드라마가 많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서 신화 전체의 특성을 추출하기에는 미흡한 감이 있지만, 그 많지 않은 사례라는 것이 옹케도 다른 측면에서의 특성 비교와 유사한 해석을 가능하게 때문에 논의의 가치가 있어보인다는 것이다.

8) 위앵커 저, 전인초-김선자 번역 『중국신화전설 I』(민음사, 1992), 49, 62, 88 및 700 쪽 참고.

앞에서 우리는 제주와 중국 및 그리스신화의 중심모티프를 각각 평화의 원리, 평정의 원리 및 투쟁의 원리로 규정해 보았는데 이들 세 지역 신화의 혼외정사 양상도 비슷한 원리가 적용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다. 제주신화의 <문전본풀이>에서 남선비의 아내 여산부인은, 노닐자대라는 첩을 집에 데려다가 같이 살자는 자기 남편의 청원을 들어주고 있는데, 이는 신들간의 평화의 원리가 나타난 것이라 할 만하다. 또한, 松堂 堂神話에서 소로소천국의 아들 궤네킨집은, 용왕국의 막내딸을 부인으로 맞아들였다가 그녀의 부정타는 행위를 탓하여 마라도로 귀양보내고 첩을 얻지만, 이 첩은 나중에 본부인을 모셔다가 남편하고 셋이서 동거하고 있다. 제주신화 중에서 농도질은 예정 드라마의 대표격인 자청비 이야기에서도, 자청비와 문도령 사이의 사랑의 진전에 궤방농는 정수남의 등장은 유희적이고 지략적인 자청비의 대응에 빛을 잃어버리고 우직한 문도령을 향한 그녀의 구애 노력이 평화적으로 성사되는 데에 아무런 장애도 되지 못한다.

중국신화에서 남녀간의 로맨스 자체를 찾아보기는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닌 반면에, 정식 배우자를 제치고 벌어지는 혼외정사의 사례는 극히 희귀한데, 이 희귀한 사례의 주인공은 화살을 쏘아서 아홉 개의 태양을 떨어뜨린 영웅신 后羿이다. 후예는 천신의 아들들[즉, 아홉 개의 태양]을 쏘아죽인 죄에 대한 벌로 하늘나라에서 쫓겨난 다음에 실의에 빠져 방랑하던 중, 강하의 지배신 河伯의 버림받은 아내 복비(宓妃)와 눈이 맞아 열렬한 사랑을 나누게 되는데, 이 사건을 둘러싼 부부관계의 변화여부가 우리의 주의를 끈다. 천성이 포악하고 비열한 하백은 아내의 사랑을 가로챈 후예에게 무력대결을 시도하나 무참한 패배를 당하고, 후예는 도도하고 이해성 없는 아내 항아(姮娥)에게서 얻지 못하던 애정의 만족을 새로운 상대자 복비에게서 얻는 가운데 욕심많은 항아에게는 서왕모로부터 얻은 불사약을 가지고 달나라 이주의 기회를 만들어 줌으로써 욕망의 배출구를 마련해 주게 된다. 이들의 경우, 후예가 일으킨 혼외정사 사건과 이로 인한 혼란상태가 일회로써 마무리되어 재발하지 않는 가운데 새로운 애정관계의 질서가 형성된다는 점에서 그리스신화의 투쟁원리나 제주신화의 평화원리와는 다른 평정의 원리를 보여준다고 생각되는 것이다. 즉, 혼외정사의 패턴을 놓고 볼 때, 배우자의 감시와 견제를 무릅쓰고 자유분방한 애정행각을 계속하는 그리스신화의 낭만적인 신들과도 다르고, 정실 부인과 첩 사이에도 다투지 않는 제주신화의 관인후덕한 신들과도 다른, 그리하여 이들 양극단 사이의 중간위치 어디쯤에 있는 것이 중국신화의 혼외정사 양상이라는 생각이다.

IV. 결 론

이제까지 우리는 제주와 중국 및 그리스의 신화를 비교연구함에 있어서 신과 인간의 관계 및 신들 상호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였고 그 결과 각각의 신화에 나타난 세 민족의 원형적인 우주관이 상당한 정도의 차이점을 지니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선 신과 인간의 관계에 있어서 제주와 중국의 신화에 있어서는 신의 존재의의가 인간의 복리증진을 위함에 있다고 할 정도로 신들은 인간을 위한 일에 진력하고 있음에 반해, 그리스신화의 신들은 (보다 정확한 표현을 쓴다면 올림푸스 主神들은) 인간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자신의 욕구충족을 일차적인 관심사로 여기며 신들의 세계 속에서 벌어지는 사랑과 미움과 다툼으로 세월을 보내고 있음을 보았다.

세 신화의 이런 차이점은 신화 형성의 동인을 생각하면 어느 정도 납득이 갈 것 같다. 제주신화는 주로 무속신화이기 때문에, 인간의 행불행 문제에 관여하며 인간이 바치는 치성여하에 따라서 인간사

의 성과와 길흉화복을 결정하는 신들이 신화형성자인 巫人들의 관심대상이었을 것이다. 그리스신화는 우주의 운행법칙을 정립하고 자연현상의 인과관계를 설명하려는 천재적 신화학자들의 상상력에 의해 쓰여졌기 때문에 인간을 위한 신이어야 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우주의 구조와 자연계의 현상들이 인간의 소원대로 존재한다고 보지 않는 냉정하고 객관적인 관점에서 쓰여진 것이 그리스신화라 할 수 있다. 중국의 신화에서 신들의 존재의의가 인간세계의 발전을 위함에 있게 된 것은 신화창작의 주체가 주로 통치계급에 속한 문사들이었다는 사실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국가의 지배자들은 자기네 정권의 정통성이 上帝(天帝 또는 天(命)의 개념으로 발전됨]와의 혈연관계 및 그 보호에 의해 확립되었음을 보여주려고 했고 官邊 신화학자들은 이러한 지배논리에 부응하여 인간세계의 질서 형성을 완수하는 신들을 창안하였을 것이라는 생각이다. 중국신화의 주인공들이 인간을 위해 존재하면서도 제주신화처럼 祈福信仰의인 개인들의 소원성취에만 관심을 두는 것은 아니고 인간세계에 고통을 내리는, 전옥(顛頊) 上帝처럼 무서운 신이 등장한다는가 신들간의 전쟁에 대한 정의로운 종결을 포함하고 있는 것은, 우주전체의 웅대한 질서를 설명함으로써 국민들의 숭앙을 받고자 했던 국가지배 세력의 고단수 통치기술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다음으로 신들간의 상호관계에서도 세 지역의 신화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보았다. 이 점에 있어서도 객관적인 우주의 구조와 자연의 질서에 대한 법칙정립적인 동기가 얼마나 신화형성의 과정에 작용했는가 하는 문제에서부터 실마리를 풀어가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스신화에서 신들간의 투쟁과 긴장이 계속된다는 것은 우주와 자연계의 여러 힘들이 보여주는 다툼과 긴장을 그대로 재현한 것이라 볼 수 있고 아들神에 의한 父王神의 축출도 생명의 우주적인 순환논리를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된다. 제주신화에서 여러 직능신들간의 다툼과 긴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샤마니즘의 기복신앙 차원에서는 오로지 인간의 기원에 대한 특정 직능신들의 호의적인 반응만이 문제였고 신들의 투쟁적인 속성은 상정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중국신화에서 상위신에 대한 하위신의 반항이 한결같이 깨끗이 평정되고 있는 것은 국가 통치권자들의 절대권력을 정당화하려는 지배논리의 연장선상에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신화를 문학예술적인 창작 모티프로 활용함에 있어서 그리스신화는 옛날부터 무궁무진한 작품소재가 되어 왔음에 비해 제주와 중국의 신화주인공들은 그러지 못하였음이 신화의 비교연구 문제를 앞둔 우리의 주의를 끈다. 제주신화와 중국신화에서처럼 인간을 도와주기 위해 존재하는 자비로운 신들, 자기자신의 내면적이고 자기실현적인 욕구를 갖지 못한 신들은 평면적이고 단선적인 성격이라서 예술창작의 모티프로서는 활용가치가 제한적이라고 보아진다. 이에 반하여 그리스신화의 신들이 인간의 행복추구 기원과는 독립적으로 그 자체적인 욕구를 지니고 있음으로써, 제주나 중국의 신화에 비하여, 입체적이고 복선적인 성격구조를 지니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라 하겠다. 또한, 그리스신화에서는 신들 상호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순종적이거나 순응적인 것이 아니라 상호투쟁과 긴장상태에 있는 것이 특징인데, 신들간의 투쟁과 긴장은, 평화와 안정성에 비해, 역동적인 변화를 지향하고, 이같은 역동적 변화의 과정에서 그리스신들은 다양하고 복합적인 성격구조를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된다. 우리는 여기에서, 그리스신들의 복합적인 성격구조가 오랫동안 고도의 상징성을 추구하는 문학과 예술활동에서 끊임없는 상상력의 원천이 되어왔음을 상기하게 된다. 인간성과 세계를 단순하고 완결된 결정체로 보지 않고 증층적이고 복합적인 요소들의 역동적인 운동과정으로 보는 자세야 말로 심층적인 인간성 탐구의 예술창작에 강력한 계기가 된다고 생각되는 것이다.⁹⁾

참고문헌

- 고대경 『신들의 고향』 서울: 증명, 1997
- 김희영 編譯 (위엔커 原著) 『중국고대신화』 서울: 育文社, 1993
- 선정규 『중국신화연구』 서울: 고려원, 1996
- 신승하 『중국사』 서울: 대한교과서, 1998
- 장기근 엮음 『중국의 신화』 전후편 서울: 범우사, 1997
- 장주근 『한국신화의 민속학적 연구』 서울: 집문당, 1995
- 정재서 『동양적인 것의 슬픔』 서울: 살림, 1996
- 『不死의 신화와 사상』 서울: 민음사, 1994
- 『山海經譯註』 서울: 민음사, 1993
- 현용준 『巫俗神話와 文獻神話』 서울: 집문당, 1992
- 『제주도 무속연구』 서울: 집문당, 1986
- 『제주도 신화』 서울: 서문당, 1976
- 마이클 로이(Michael Loewe), 이성규 번역 『古代中國人の 生死觀』(原典 *Chinese Ideas of Life and Death: Myth and Reason in the Han Period*) 서울: 지식산업사, 1988.
- 하엘 켈마이어, 유혜자 번역 『그리스신화』 서울: 현암사, 1998
- 위엔커, 전인초-김선자 번역 『중국신화전설 I』(대우학술총서-번역 53) 서울: 민음사, 1992
- , 전인초-김선자 번역 『중국신화전설 1』(세계문학전집16) 서울: 민음사, 1999
- , 정석원 번역 『중국의 고대신화』 서울: 문예출판사, 1987
- 王治心, 전명용 번역 『중국종교사상사』 서울: 이론과실천, 1990
- Cambell, Joseph. *Oriental Mythology: The Masks of God*. Penguin Books, 1976
- Georges, Robert A. ed. *Studies on Mythology*. Homewood: Dorsey Press, 1968
- Guerber, H. A. *The Myths of Greece and Rome*. London: Harrap, 1934
- Hamilton, Edith *Mythology*. New York: New American Library, 1969
- Lloyd-Jones, Hugh *The Justice of Zeus*. Los Angeles: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71
- Tripp, Edward *The Meridian Handbook of Classical Mythology*. New York: New American Library, 1970

9) 현대 미국의 저명한 신화학자 조셉 캠벨(Joseph Campbell)은 *Oriental Mythology : The Masks of God* (Penguin Books, 1976)에서 중국의 신화나 철학이 무미건조해진 원인을 그 실용주의적 도덕주의적 특징에서 찾는 듯한 발언을 하고 있다.

According to the Chinese mythic view, there was a mutual influence operating between heaven, earth, and man. - - - All Chinese philosophy is essentially the study of how men can best be helped to live together in harmony and good order. - - - Every Chinese philosophy is formulated not as an abstract theory but as an art of ruling. (p. 410)

The Indian [mythology] is lush, voluptuous, or in reaction, fiercely ascetic; the Chinese, either dryly practical or humorously symbolic, never extreme. (p. 413)

<ABSTRACT>

A Comparative Study of Cheju, Chinese, and Greek Mythologies

Yang Young-Soo

This comparative study tries to find similar and different points among Cheju, Chinese, and Greek mythologies, and the comparative examination in this paper is made in two aspects, i.e. the relation between human and divine entities and the one among divine entities.

As for the first aspect, the supreme purpose of the divine entities in Chejuian and Chinese mythologies is to help to enhance the well-being of human beings. Difference between these two mythologies is that Chejuian gods' help centers on the individual person's fortunes, while Chinese gods' help centers on the universal establishment of natural order. This kind of difference seems to come from the fact that Cheju mythology is mostly shamanistic, while Chinese mythology derives mostly from the art of ruling which is the more effectively practiced by propagating some plausible order of the world. The supreme purpose of Greek gods is to satisfy their own desires, not the human beings' prayer, and so the interests on the part of men must be pursued by their own struggle with ruling gods.

As for the second aspect, the relation among Chejuian gods is characterized by the principle of peace, since they are showing no antagonistic conflicts among themselves; the relation among Chinese gods by the principle of pacification, since their power struggles, if any, are reduced to the state of peace by the ruling supreme god; the relation among Greek gods by the principle of struggle, since they are pursuing endless struggle either in governing the world or in amorous affairs. Greek gods' tendency of struggling disposition seemingly gives rise to the dynamic structure of their character, which has been used as prolific materials of artistic creation in literary and visual representation of the humanity.